

제1야당 조직력이 제3지대 바람 놀렸다

野서울시장 단일후보, 안철수 꺾은 오세훈 결정 국민의힘, '제1야당' 조직 풀 가동해 여론전 우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3일 국민의당 후보인 안철수 대표를 꺾고 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로 최종 결정되자, 정치권에에선 제1야당 조직력이 제3지대 바람을 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 후보로선 국민의힘 경선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꺾는 이번으로 당심을 사로잡은 데 이어, 여야 후보를 통틀어 한동안 최선두권에 있던 안 대표마저 추월하며 이번 보궐선거에서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과반을 일으켰다.

안 대표는 제3지대에서 야권에서 급부상한 금태섭 전 의원을 쉽게 꺾고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새 정치를 갈망하는 지지층을 공략해 '안풍(안철수 바람)'을 재연하고자 했지만, 당 가용 조직을 풀 동원한 국민의힘의 조직력에 판을 뒤집는 건 의석수 3석의 근소정당으로선 역부족이었다. 결국 두

당의 의석수에서 여실히 드러난 조직력 차이가 여론전에서 승부를 가른 것이라는 분석이 적잖다.

국민의힘 당 내에선 여론조사가 시작되기도 전 오 후보의 낙승을 점치는 관측이 많았던 것도 이른바 '당발' 덕에 제1야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 기인한다.

실제 국민의힘은 서울 지역만 해도 당원 50만명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200만~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당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당의 모든 조직을 가동해 '오세훈 대세론'을 만들기 위해 총력전을 폈다.

보수 정당에서 중도 노선을 걸어온 오 후보가 중도확장전략론을 들고나와 중도층을 주된 지지층으로 두고 있는 안 후보와의 중원싸움에서 크게 밀리지 않은 점도 선전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범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오 후보가 중도우파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중도 성향인 안 대표가 오 후보에 맞서 차별화가 쉽지 않아 중원싸움에서 고전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만약 강경 보수 이미지를 가진 국민의힘 후보였다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오 후보와 관련한 내곡동 땅 투기는 안 후보와의 중원싸움에서 크게 밀리지 않은 점도 선전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오 후보는 이날 단일화 발표 후 입장을 내 "오늘은 위대한 서울시민의 선택의 날"이라며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승리를 가져오겠다. 저는 단일화로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의 길을 활짝 열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AZ 백신 만족감 표현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23일 오전 9시 종로구보건소를 찾아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이날은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소자에 대한 AZ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날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만 68세, 김 여사는 만 65세다.

문 대통령 부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오는 6월 예정된 주요 7개국(G7) 회의 참석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시행 중인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이후 김 여사가 상의를 벗고 반팔 차림으로 대기했다.

문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모습을 지켜보며 "주사 놓는 솜씨가 아주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왼쪽 팔에 주사를 맞은 김 여사는 접종이 끝나자 "벌써 끝났어요"라며 웃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접종 후 관찰실로 이동해 30분간 대기했다.

이날 문 대통령 부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형진 안보실 2차장, 유연상 경호처장, 탁현민 의전비서관,

文대통령 부부, 6월 G7 참석 위해 종로보건소 방문해 접종 접종 마친 金여사 "벌써 끝났어요" 웃음...관찰실 이동·대기 서훈 안보실장 등 G7 필수 수행 9명도 코로나19 백신 동참

차'를 실시하고 있다. 공무상 국외출장,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방문의 경우 등에 한해 예방접종을 하도록 한다.

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사전 작성한 예진표를 들고 보건소를 찾았다.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을 마친 뒤, 건강 상태를 묻고 답하는 간단한 예진을 받았다.

예진을 마친 문 대통령은 재킷을 벗고 흰색 반팔 와이셔츠 차림으로 접종을 기다렸다.

접종을 맡은 간호사가 "오른팔을 자주 사용하시니 왼팔에 놓아드리겠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왼쪽 반팔 셔츠를 조금 더 걸었다.

이어 간호사가 AZ백신이 담긴 병에서 주사액을 뽑은 뒤 "따끔하셔요"라며 주사를 놓자, 문 대통령은 "주사를 잘 놓으니까"라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신지연 제1부속 비서관, 최상영 제2부속 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등 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일정을 보좌할 필수 수행원 9명과 함께 백신을 접종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 부부가 G7 출국 대표단과 함께 접종을 받고자 질병관리청이 G7 출국 대표단 예방접종 실시기관으로 지정한 종로구보건소에 직원들과 동행했다고 밝혔다. 통상 대통령의 진료는 대통령 전담병원인 국군서울지구병원이 담당하고 있다.

문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총 11명이 함께 접종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접종 현장에서 폐기량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잔량도 활용하는 방침에 따라 종로구 보건소에서 1바이알(병)당 11도즈(회) 접종이 가능하다고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국민의힘 김종인 오늘 광주 방문...서울의 호남 민심 얻기 행보

5·18묘지 메세지 주목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광주를 방문한다.

23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야권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후

보로 오세훈 후보가 선출된 가운데 김 위원장은 24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김 위원장은 이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18관련 3단체와 간담회를 갖는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만으로 국민통합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광주를 '제2의 지역구'로 삼은 '광주동행' 의원들이 동행한다.

그의 이번 방문은 서울시장 보선

을 앞두고 서울의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야권 단일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결정되자마자 김 위원장이 광주, 호남을 찾는 것은 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서울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면서 "5·18묘지에서의 메시지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임종석 "박원순, 청렴한 공직자"...정의당 "악의적 2차 가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3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가장 청렴한 공직자"라고 추켜세우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은 정말 그렇게 몸을 사림이었던가"라며 "청렴이 여전히 중요한 공직자의 윤리라면 박원순은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였다. 호텔 밥 먹지 않고 날 선 양복 한 번 입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반 이상 남기는 쪼잔한

공직자였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박원순은 미래 가치와 생활 이슈에 가장 민감하고 진취적인 사람이었다"며 "딱딱한 행정에 사람의 온기와 숨결을 채우려 무던히 애쓰던 그의 열정까지 매장되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박 전 시장 성추행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데 대한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정의당은 임 전 실장이 글을 논란이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2차 가해가 선거전략이냐"며 반발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대통령비서실장까지 지낸 임종석씨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어떤 이유로 치러지는지 모르지 않을 터인데 선거를 목전에 두고 대놓고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기까지 하다"며 "임종석씨는 참으로 몸을 사림"이라고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피해자의 일상 복



귀를 방해하는 정당이 1000만 서울시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이냐"며 "결국 민주당 지도부와 박 후보의 사과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하지 못한 한 시늉에 불과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공허한 사과가 부른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